



3면

“의화다운 의회 구현”

전주매일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음 5월 8일) 제352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부안서 규모 4.8 지진 발생

16차례 여진도 확인... 시설피해 129건·인명피해는 없어
전북자치도, 재대본 비상 1단계 발령... 비상상황 유지
김관영 도지사, 상경 일정 마무리 후 지진 피해 현장 방문

12일 오전 8시 26분경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경도는 126.71도이며 깊이는 8km다.

이후 부안 지역에서 여진은 오후 3시까지 총 16번의 여진이 발생했다. 3.1 규모의 여진도 확인됐다.

오후 6시 현재까지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크고 작은 시설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아직 없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 피해는 129건이다. 직접 집계인 오전 11시 기준(32건)보다 97건 급증했다.

지진 발생 지역인 부안 114건, 인근 지역인 정읍 8건, 고창 3건, 익산 1건, 군산 1건, 광주광역시 1건이다.

국가유산 유형을 보면 △유리창 깨짐과 벽에 금이 감 △창고 건물 벽쪽 금이 감 △화장실 타일 깨짐 △단독주택 담 기둥어짐 △맨션 문 개방 안됨 등이었다.

시설 피해 유형을 보면 부안에서만 6건 신고됐다.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구암리 지석묘군,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상, 내소사 칠성당과사 등이 일부 파손됐다.

전북지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도 62건이나 됐다.

인명 피해는 오후 6시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했으며, 도 13개 협업기 및 14개 시·군이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이날 오전 9시 행안부장관 주재 회의를 가졌으며, 이어서 행정부지사과 도 관령부서와 14개 시·군과 지진 상황에 대한 대처를 논의했고, 특히 댐·저수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수시 점검을 비롯해 도민 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기상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여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대비하겠다.”라며, “다른 재난과 달리 지진은 발생을 예측할 수도 없기에 도민들께서는 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직접 피해상황 등을 살피기 위해 부안으로 달려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새벽 서울에서 제22대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복연고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정례간담회를 갖고 도정 현안 등을 논의하는 등 상경 일정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부안으로 내려가 지진 피해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관련사진 2면> 김 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도민은 신속하게 대피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부안댐과 영광 한빛원전 등 국가기반시설은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관리기관과 상시 소통 창구를 통해 피해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서둘러 달라”며 “저수지나 산사태,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경우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응급복구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추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예경보 시설과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진 발생에 대한 도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진도는 V(5)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의 진동이다.

/이만호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12일 부안군 계획면의 한 주택가에 지진으로 인해 떨어진 기왓장이 도로에 널브러져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일제가 갈라놓는 지역 주민 힘으로 통합 성사”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속도’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등 3개 단체
6152명 서명 받아 완주군에 명부 제출

“완주·전주 통합 서명 적법하게 진행돼
민간공동대책위 조성에 통합 이루겠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사)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나유인, 마완식)가 12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추진위원회와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한 한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이사장 이상철), 완주·전주 상생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도 자리를 함께해 완주·전주 통합 활동에 힘을 보탰다. <관련사진 3면>

위원회는 완주군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1,693명의 3.5배에 달하는 6,152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완주군청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완식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일제가 갈라놓은 완주와 전주를 해방 79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것을 오직 군민의 힘으로 통합시켜 일제가 남긴 식민지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하며, “완주군민의 높은 군민식으로 대과 없이 마무리하게 됐다”라며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된 공을 의식 있는 완주군민들에게 돌렸다.

그는 “이번 서명은 지난 1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했으며, 3월 10일~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은 서명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또한, “완주군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완주·전주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1998년 전남 여수시의 여천군이 통합해 여수시가 되고, 2010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해 창원 통합시가 됐으며,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도 2014년 통합 청주시가 됐다.”고 주장하며, 오직 완주·전주 통합에 실패해 아쉬움이 큰데, 2024년 1월 18일 전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해 더 이상 완주·전주 통합을 미룰수 없다고 생각돼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와 (사)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가 통합건의 서명운동에 동참해 이루어진 성과임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완주군과 전주시가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정 절차와 주민투표법에 따른 정부의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되면 통합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는 빠르면 올해 안에 실시될 것을 기대한다.”고 통합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양한 민간단체를 통합해 민간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드시 통합을 이루겠다”며, 끝으로 신속있는 양 지역 상생 사업이 추진 되도록 각계 각반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 사업 계획 수립도 촉구했다.

12일 오전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요구 서명부가 완주군에 정식으로 제출됨에 따라 도민들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 또한 크다고 보고 있다. /이만호 기자

소기업성장공헌금제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지원 상담팀 02-44-0800(2024.3.11.~2025.2.28)
*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되며, <예규제보> 인(24)노란우산은 예규제보에 따라 예규제보공시(보)로 게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및 운영자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상해 시점에 필요한 제언(제보)을 위해 예 규(안)과다 납부회급을 포함한 준비금의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